

작년 건설업 매출액 19조 감소…25년만에 최대폭



■ 국가데이터처 2024년 건설업 조사

3.8% 감소한 487조…기업체 수는 늘어

종사자 176만명 전년비 5만명 이상 감소

지난해 건설업 매출액이 전년보다 3.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 감소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인 2020년 이후로 4년만이다. 감소 폭은 외환 위기 직후인 1999년(-11.1%) 이후로 가장 크다.

16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4년 건설업 조사(기업설정부문)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업 매출액은 전년보다 3.8%(19조 원) 감소한 487조7000억원이다.

업종별로는 종합건설업 매출액은 311조 4000억원으로 5.3%(17조5000억원) 감

소, 전문직별 공사업은 176조 3000억원으로 0.9%(1조6000억원) 감소했다.

해외건설 매출은 48조4000억원으로 17.5%(7조1000억원) 급증했지만, 국내 건설 매출이 439조3000억원으로 5.6%(26조1000억원) 줄었다.

건설업 매출은 2023년 500조원 선을 돌파했으나 지난해 뒷걸음질하면서 다시 400조원대로 밀려났다.

매출 감소는 이례적이다.

외환위기 후폭풍 속에 1998년(-12.9%)과 1999년(-11.1%) 연속으로 두

자릿수 감소율을 보였지만, 이후로 20

년간 플러스 행진을 이어갔다.

시공능력 평가에 기준 상위 100대 기업의 매출액은 189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9% 감소했다.

건설업 기업체 수는 지난해 8만9101개로 전년(8만7891개)보다 1.4%(1210개) 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124개), 세종(-69개), 광주(-52개), 제주(-34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기업체 수가 늘었다.

건설업 종사자 수는 175만9000명으로 전년(181만명)보다 2.8%(5만2000명) 줄었다.

작종별로 보면 임시·일용직은 88만 8000명, 기술직은 48만8000명, 사무직·기타는 22만3000명, 기능직은 15만9000명이다.

그밖에 건설비용은 477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6%(12조8000억원), 건설업 부가가치는 143조2000억원으로 5.2%(7조9000억원) 각각 감소했다.

부가가치는 급여총액,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임차료, 세금과 공과, 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 영업이익, 납부부가가치세를 더한 값이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지역 제조업·건설투자 ‘뒷걸음질’

소비·물가·고용 지표는 개선

광주·전남지역의 제조업 생산이 부진한 반면 소비는 점점에서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내 건설투자는 부진한 모습이다.

16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내놓은 ‘최근 광주·전남지역 실물경제 동향’에 따르면 지난 10월의 광주지역 제조업 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8.9%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조업 생산은 기타 기계·장비(-39.9%), 고무·플라스틱(-49.3%) 등이 줄면서 부진했다.

수출은 전기장비·전자부품(53.2%), 자동차 등 기계류(5.0%)를 중심으로 전년 동월 대비 20.1% 증가했고 수입은 전기장비·전자부품(40.3%)에 힘입어 28.3% 늘었다.

대형소매점 판매는 백화점(5.1%), 대형마트(6.3%) 모두 늘면서 전년 동월 대

비 5.5%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설투자는 공업용(-61.6%), 상업용(-81.7%)을 중심으로 전년 동월 대비 63.0%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은 비임금근로자가 1만2000명 줄었으나 임금근로자가 3만8000명 늘며 전년 동월 보다 2만6000명 증가했다. 실업률은 2.3%로 전년 동월 대비 0.3%p 하락했다.

전남의 실물경제는 제조업 생산이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3.2%), 기타운송장비(-22.2%)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5.5% 감소했다.

광주와 전남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같은 기간 수출도 화학공업제품(-17.2%), 철강금속(-10.7%) 등이 줄면서 전년 동월 대비 2.3%, 2.6% 올랐다.

은 농·수·광산물(-4.7%)을 중심으로 3.5% 줄었다.

반면 대형소매점 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 0.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투자는 주거용(133.0%) 증가했으나 공업용(-51.2%)이 감소하며 전년 동월 수준을 유지했다.

임금근로자는 1만명 늘었으나 비임금근로자가 1만3000명 감소했고, 실업률은 2.3%로 전년 동월보다 0.2%p 하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와 전남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같은 기간 수출도 화학공업제품(-17.2%), 철강금속(-10.7%) 등이 줄면서 전년 동월 대비 2.3%, 2.6% 올랐다.

이산화기자 goback@gwangnam.co.kr

KT 대표이사 최종 후보에 박윤영 전 KT 사장



로 확정했다. 박 전 사장은 내년 3월 예정된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결 참여 주식의 60% 이상 찬성표를 받으면 정식으로 취임한다.

연합뉴스

청년 10명 중 3명 ‘번아웃’…최대 고민은 ‘진로’

여성·대출자 비율 높아…삶 만족도 6.50점

지난해 청년 3명 중 1명은 ‘번아웃’을 겪은 가운데 가장 큰 이유는 ‘진로 불안’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는 16일 ‘청년 삶의 질 2025’ 보고서를 보면 ‘번아웃’을 경험한 19~34세 청년 비율은 2022년 33.9%에서 지난해 32.2%로 2년 만에 1.7%p 줄었다. 반면 비수도권에 사는 청년의 경우 같은 기간 30.0%에서 33.3%로 상승했다.

지난해 청년 여성의 번아웃 경험률은 36.2%로 청년 남성(28.6%)보다 7.6%p 높았다.

학력별로 보면 대학 졸업 이상인 청년의 번아웃 경험률은 34.1%로 가장 높았다. 이어 대학에 다니거나 휴학 중인 청년(29.7%), 고졸 이하 청년(28.2%) 등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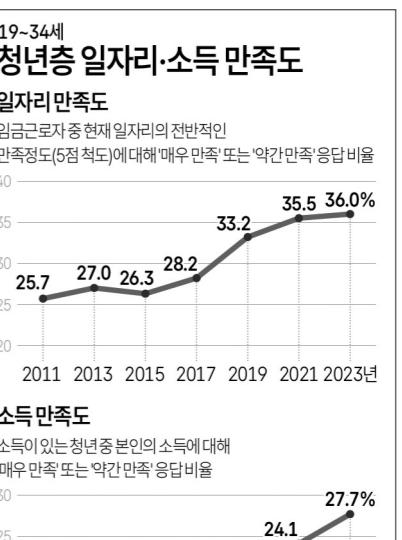
번아웃을 경험한 이유로는 ‘진로불안’이 39.1%로 가장 많았고, ‘업무과중(18.4%)’, ‘업무에 회의를 느껴서(15.6%)’ 순이었다.

19~24세와 25~29세는 ‘진로불안’ 응답이 각각 54.8%, 41.5%로 가장 높았다.

30~34세의 경우 ‘진로불안’과 ‘업무과중’이 각각 22.3%, 22.2%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청년층이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 비율은 2014년 이후 낮아지는 추세다.

2014년 대인 신뢰도는 20대(19~29세)와 30대(30~39세) 모두 74.8%에 달했지만, 지난해엔 각각 53.2%, 54.7%로



약 20%p 하락했다.

코로나19 시기(2020년)에 크게 떨어진 뒤 회복되지 않는 모습이다.

계층 이동의 희망도 크지 않았다.

본인 노력으로 사회경제적 지위를 높일 수 있다고 믿는 비율은 27.7%에 불과했다. 청년층의 삶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6.50점이었다.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년(15~29세)의 삶의 만족도(2021~2023년 평균)는 OECD 38개국 중 31위에 그쳤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제조기업 70% 영업익 달성 난항…“실효성 있는 지원을”

김학선 광주국세청장 간담회

광주상의, 상속공제 등 건의



광주상공회의소는 16일 광주상의 대회의실에서 김학선 광주국세청장 초청 ‘상공인 세정간담회’를 개최했다.

속에서도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주시는 상공인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견의해준 소중한 의견들은 세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고, 납세자의 든든한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을 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세정지원 제도 및 기업 경영 시 유의사항, 기업승계 지원제도 등 기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세무 정보가 제공됐다.

김학선 광주국세청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주시는 상공인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견의해준 소중한 의견들은 세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고, 납세자의 든든한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을 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세정지원 제도 및 기업 경영 시 유의사항, 기업승계 지원제도 등 기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세무 정보가 제공됐다.

참석한 상공인들은 “기업의 생존과 미

래를 고민하는 시점에 가뭄의 단비와 같았습니다.”며 “경제 상황을 고려해 적극적 견의해준 소중한 의견들은 세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고, 납세자의 든든한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을 하겠다”고 평가했다.

이어 진행된 ‘세정 애로 및 견의사항’ 시간에는 지역 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어려움이 쏟아졌다.

기업상속공제 시행후관리를 비롯해 영세 중소기업 법인세 증액 예상 문제 기준 상향·탄소증립 기업을 위한 ESG 세정지원 프로그램 도입 등 6건의 건의가 제기됐고 광주국세청은 심도 있는 답변과 함께 적극적인 검토를 약속했다.

한편, 이날 두 기관장은 어려운 대내외 경제 상황을 고려해 격식을 걷어낸 ‘도시락 오찬’으로 머리를 맞대 눈길을 끌었다.

도시락으로 식사를 간소화해 소통의 밀도를 높인 상상원 회장과 김학선 청장은 간담회 후 자리 대표 기업인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을 방문해 생산 라인을 살피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기업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현장 행보를 이어갔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스마트인재개발원 AI 취업연계 교육 ‘호평’

산업구조변화대응 특화훈련 과정 평균 4.7~5.0점 기록

스마트인재개발원이 고용노동부와 광주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주관하는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사업 일환으로 운영하는 AI 취업연계형 교육과정은 평균 5점 만점 기준 4.7점~5.0점의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올해 하반기 최근 수료가 완료된 AI 취업연계형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해당 과정은 6개월간 운영되며 비전공자도 AI·데이터 기반 서버 스케일 전반을 이해하고 실무 프로젝트 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수강생들은 기초 이론부터 단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커리큘럼 덕분에 비전공자도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었고 실제 서비스를 구현하는 프로젝트 중심 수업을 통해 AI 이해도와 코딩 역량이 크게 향상됐다고 평가했다. 강사진의 밀착 지도와 수료 시점까지 이어지는 학습 관리, 취업연계 지원 역시 높은 만족도를 얻었다.

특히 팀 프로젝트 기반 교육 방식은 협업 경험과 역할 분담, 실무 흐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이를 통해 훈련생 스스로 자신의 역량을 점검하고 향후 성장 방향을 설정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는 분석이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김장을 맞아 배추김치와 김장 양념류 유동이